

'일자리 넘치는 행복도시'

군산시, 일자리 정책 추진 강화 '일자리담당관' 신설 배치

군산시는 최근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시장 직속의 일자리담당관을 신설 배치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부응하고, R&D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신설된 일자리담당관의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구직자와 기업체의 최적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며, 청사 내 일자리정보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기업자와 구직자의 mismatch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및 중장년층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업지원사업과 근로자 자선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하고, 구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 권익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임대아파트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노사협력력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 등에게 신규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어 줄 재정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실업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이석 일자리담당관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이 답이다라는 마음으로 고용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관곤기자



군산시, 지성어린이집 원생들 이웃돕기 사랑의 저금통 전달

군산시 회현면에 소재한 지성어린이집 원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고사리 손으로 모은 사랑의 저금통(30만원)을 전달해 한파로 꽁꽁 언 몸과 마음을 녹였다.

29일 진행된 회현면 신년인사회에서 원생들이 멋진 공연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사랑의 저금통'을 전달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의미가 더욱 컸다.

이중혁 회현면장은 "아이들이 베풀 줄 아는 마음 넓은 성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곤기자

평생학습의 길을 넓히다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웹사이트 보강

정보 제공 · 무료 동영상 · 교육 강좌서비스 확충

군산시는 최근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의 콘텐츠를 대폭 보강한 웹사이트를 공개했다.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좌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글자 크기를 대폭 확대했으며, 무료 동영상 교육 강좌도 총 788개로 그 수를 대폭 늘렸다. 아울러 시민참여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해 '사랑의 저금통'을 전달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의미가 더욱 컸다.

이중혁 회현면장은 "아이들이 베풀 줄 아는 마음 넓은 성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 교육을 통해 향후 학습형 일자리 창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09년 1월부터 개설 운영 중인 '군산시사이버평생학습관'은 시민들에게 시의 주요 평생교육사업을 안내하고 평생교육기관·동아리 정보 및 평생학습 인력풀인 강사은행제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김관곤기자

투어버스 타고 시대와 신분 넘나들다

내달 3일 익산시투어버스 운행 개시

70~80년대 잘나가는 모던 보이와 모던 걸부터 천사백년 전 백제인 최수에서 왕까지 변신, 단 하루 만에 모두 가능할까?

2018년 익산시투어 버스를 타고 익산여행을 한다면 마치 타임머신과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시대와 신분을 넘나들 수 있다.

익산시는(시장 정현을) 다음달 3일부터 순환형과 테마형, 광역형뿐만 아니라 2018년 전국체전을 반영한 체전형 등 다양한 형태로 익산시투어를 운영한다.

지난해 8월 전라북도 최초로 운영한 익산 순환형 시투어는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를 거쳐 순환형 코스에 익산교도소세트장과 고스락 새로 추가했다.

순환형 시투어 코스는 익산역을 출발하여 고스락 교도소세트장, 미륵사지 왕궁유적지, 보석박물관을 경유하여 익산역으로 돌아온다.

탐승 인원에 관계없이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10시부터 16시10분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1일 7회 운행하고 승차권 발급은 별도 예약없이 시투어 출발 시 현장에서 하면 된다.

순환형 시투어는 1970~80년대 의복(문화예술의 거리), 최수백교도소세트장, 백제인과 백제왕과 왕비 복식(왕궁리유적) 등 다양한 의복체험을 할 수 있다.

익산시는 여행 상품성이 높아 최근 크레디탈전북본부 여행센터와 연계해서 용산역을 출발하는 열차와 익산 시투어를 연계한 열차관광 상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2월 코레일 연계 관광상품(20인 선착순 상품)은 판매가 완료됐다.

테마형 시투어는 익산 숨은 보석 찾기 코스(익산역-나비위성당-교도소세트장-고스락-미륵사지-보석박물관-문화예술의 거리/중.매.서시장)와 세

계유산코스(익산역-문화원(경유)-익산쌍릉-왕궁유적-미륵사지-보석박물관) 2개 코스로 운영한다.

단, 10인 이상이 24시간 전 사전 예약 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행한다.

탐승료는 순환형, 테마형 시투어 모두 성인 4,000원, 단체(20인 이상) 3,000원, 초·중·고 장애우, 6.7세 아동 등은 2,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전라도 방문의 해이며,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장애인체전, 미륵사지석탑 가설 덧집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있어 이와 연계한 맞춤형 시투어를 운행해 백제왕도인 관광도시 익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환형은 각 코스별 관광안내소에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가 탐승객 맞이와 배웅, 관광지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테마형은 출발과 도착에 이르기까지 전담 문화관광해설사가 진행해 풍겨오는 맞춤형 시투어로 운행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청 권영준 선수 독일월드컵펜싱선수권 금메달

익산시는 펜싱 국가대표 권영준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영준 선수는 지난 28일부터 28일(한국시간)까지 독일 하이데라임에서 열린 월드컵 펜싱선수권대회에서 남자에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권 선수는 정진선(화성시청)·박경두(해남군청)·박상영(한체대) 선수와 팀을 이뤄 출전해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4대 4로 꺾어 왕좌에 올랐다.

한편 미국 볼티모어 월드컵 펜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익산시청 김지현 선수는 29일(한국시간)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해 동메달을 차지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비응항~장자도 구간 98번 노선 신설

관광형 2층 시내버스 2대 투입

군산시가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응항~장자도 구간 98번 노선을 신설하고 관광형 2층 시내버스 2대를 투입한다.

30일 시범운행을 통하여 시내버스 운행을 홍보하고 운행노선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설된 노선은 2월 1일 06시 30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1시간 간격으로 20시 30분까지 운행되며, 탐승요금은 기존 군산시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다.

고군산군도에 투입되는 2층 시내버스는 전라북도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1층 12석, 2층 50석, 휠체어 대기 공간 등 73석이며, 초저상버스로 휠체어 경사판

등이 구비되어 있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또한 차량 외부에는 고군산투어의 영문 네이밍(GOgunsanTour)과 서해안 지역에 서식 중인 멸종위기종 '상괘니'를 캐릭터화 해서 맵핑 완료했으며, 특색 있는 외부 디자인으로 지역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2층 시내버스 도입이 고군산군도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교통편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 관광객 수요에 따라 일반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탄력적 운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관곤기자

원광대 LED 대학원과정 인력양성사업단, 특별 세미나 개최

원광대학교가 취업연계 LED 대학원과정 인력양성사업단이 김원준 전남대 교수를 초청해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식재산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의공과대학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취업연계과정에서 요구되는 산업

체 맞춤 과목으로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발표에 나선 김원준 교수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는 자제가 취업 준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식재산권과 종류, 산업재산권

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출원과 등록과정을 소개했다.

아울러 지식재산을 다루는 변호사와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과목, 배점 등을 안내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

익산=정양원기자